



2018 강원학 연구보고 1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The Master Plan for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이종미

발간사

강원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고 재발견하는 인식의 토대로서 '강원학'연구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원학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재조명하고, 강원 지역의 성장 동력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학문이며 강원도의 뿌리를 찾아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는 기틀을 만드는 미래학입니다. 강원연구원은 두 차례의 포럼을 통해 강원학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강원학 육성을 위한 센터의 재설립 추진 및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등 지속적 이슈 제기를 주도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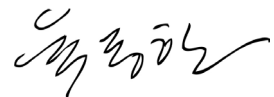
2017년 강원학연구센터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강원연구원 안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서 강원학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강원학연구센터가 향후 강원학과 관련된 거점 연구기관, 강원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운영 전반에 관한 비전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순회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분석 등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상황 진단을 하고 센터 운영 방향, 중점 추진 의제를 설정하여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많이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 부흥을 위한 강원학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함으로써 강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구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원들과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요약문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 방법	3
II. 국내 지역학 및 연구기관 현황	5
1. 국내 지역학 및 연구기관 현황	5
2. 지역 사례	8
2.1 서울학연구소	8
2.2 제주학연구센터	10
2.3 대구경북학연구소	14
2.4 인천학연구원	17
2.5 경기학연구센터	20
3. 지역학 연구기관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22
III.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23
1. 강원학연구센터 추진과정 및 운영현황	23
2. 강원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변화 요인	29

3. 지역 내 의견 수렴	32
3.1 순회세미나 결과 정리	32
3.2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정리	40
3.3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47
IV.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구상	53
1. 강원학연구센터 중장기 로드맵	53
1.1 강원학연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53
1.2 정책의 기본방향	56
1.3 강원학연구센터 육성과 확산을 위한 기본과제	60
1.4 강원학연구센터 육성과 확산을 위한 핵심과제	64
2.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계획	72
 참고문헌	 75
 부 록	 77
 ABSTRACT	 79

표목차

<표 II-1> 지역학 연구 기관 현황 6
<표 II-2>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사업 12
<표 II-3> 대구경북학연구소 활동방향 및 연구소 역할 15
<표 III-1> 강원학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24
<표 III-2> 강원학연구센터 연혁 26
<표 VI-1> 강원학연구센터 중단기(5년) 계획 55
<표 VI-2> 강원학연구센터 중단기(5년) 예산 계획 74

그림목차

<그림 II-1> 제주학연구센터 비전 및 목표	13
<그림 II-2> 인천학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18
<그림 II-3> 인천학연구원 조직도	19
<그림 III-1> 강원학연구센터 비전 및 주요사업	27
<그림 III-2>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 증대	29
<그림 III-3> 지역학 관련 정책 부각	30
<그림 III-4> 순회세미나 개최 현황	32
<그림 III-5> 영서북부권역 순회세미나	33
<그림 III-6> 영동권 순회세미나	35
<그림 III-7> 영서남부권역 순회세미나	37
<그림 III-8> 강원학 연구의 현실	39
<그림 III-9> 강원학연구센터의 역할 제언	39
<그림 III-10> 강원학에 대한 인지 여부	41
<그림 III-11> 강원학에 대한 관심 정도	41
<그림 III-12> 시군단위 지역학 필요성 유무	41
<그림 III-13> 강원학 관심 분야	42
<그림 III-14> 강원학연구의 파급효과	42
<그림 III-15> 강원학연구센터 중점 분야	43
<그림 III-16> 강원학 연구 결과 향유 방안	43
<그림 III-17> 강원학 인지도부(아카데미 참여자)	44
<그림 III-18> 강원학에 대한 관심 정도	45
<그림 III-19> 관심 분야	45
<그림 III-20> 교육 강사의 강사 준비 및 교육 내용 만족도	46

<그림 Ⅲ-21> 교육 내용의 이해도 및 흥미도	46
<그림 Ⅲ-22>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	46
<그림 Ⅲ-23> 향후 교육에 참여할 의향	47
<그림 Ⅳ-1> 강원학연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54
<그림 Ⅳ-2> 강원학연구센터 정책의 기본 방향	56
<그림 Ⅳ-3> 강원학연구센터 주요 사업	60
<그림 Ⅳ-4> 강원학연구센터 조직도	72

요 약 문

1990년대 지방 자치 제도의 본격 시행과 세계화 추세로 지방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학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기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역학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서울 정도 600년을 기점으로 서울학연구소가 창설된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다른 지역도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학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학 연구기관들은 최근 지역분권이 강조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6년부터 강원연구원은 강원포럼을 통해 강원학연구센터의 부활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켰고, 2017년 6월 16일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7년 강원연구원 안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서 강원학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강원학연구센터가 향후 강원학과 관련된 거점 연구기관, 강원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강원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와 SWOT 분석을 통해 강원학연구센터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강원학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강원학 연구의 정체성을 찾고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순회세미나,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강원학연구센터의 기본방향 및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강원학 연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 강원학연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 강원학연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었다. 순회세

미나,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강원학 관련 인적 자원 부족, 강원학 자료 취득의 어려움, 강원학 학술지 부재, 기초 자료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런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강원학 관련 학술지 발간, 기초 토대 연구 강화, 융복합적 연구 필요, 교육 확대, 지역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북강원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이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 발전방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강원학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2020년까지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들의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인적자원들과의 네트워크에 주력할 예정이다. 2단계 성과 확산기에는 기존 사업을 보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관련 콘텐츠 확산 등 사업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해 성과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위상 확립기에는 강원학 연구의 정체성을 찾고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사업 수행,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학 모색, 플랫폼기관(도우너 리서치로서의 기능),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강원학연구센터의 핵심과제는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 마을 기록화 사업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체계화, 융복합적 연구를 통한 지명연구 및 지역어연구 필요, 남북강원 이해를 통한 통일 강원 대비, 지역학 교재 개발을 통한 지역 바로 알기 등으로 선정하고 기 추진된 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의 확장과 구체적 실현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지방 자치 제도의 본격 시행과 세계화 추세로 지방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학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학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지방화는 중앙과 지방의 위계 구도를 해체하고 각 지방이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방이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지방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역학 논의가 활발해졌고 민간이나 대학연구소 등에 머물러 있던 지역학이 지자체를 주축으로 한 공식적인 시설 설립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학 연구의 지향점은 지역민의 자부심 향상과 정체성 강화 또한 지역학 연구물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향유하여야 한다. 정체성은 지역사회의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 주민이 자기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로 지역학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순히 문화의 수용자에 국한되었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진흥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 속 생활 문화 확산이 강조되면서 지역학 연구 성과물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2002년 비교적 일찍 강원학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2010년 폐지되면서 강원학연구의 중심체가 없어지게 되었다. 2017년 강원학연구센터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강원연구원 안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서 강원학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강원학연구센터가 향후 강원학과 관련된 거점 연구기관, 강원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강원학연구센터와 관련된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분권 강화 등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증대되는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원학이 필요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강원학연구센터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강원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와 SWOT 분석을 통해 강원학연구센터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강원학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강원학 연구의 정체성을 찾고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의 거점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운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지역의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한 토대 연구가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이를 활용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원학연구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둘째 강원학 연구가 단지 “학”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료 및 연구 결과물을 주민과 향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실용화와 대중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강원학을 활용한 사업에 지역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강원학 연구 성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로 활용할 지에 대한 연구과제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학과 관련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연구, 활용, 자료 축적 등에 있어 각각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강원학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강원학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현황,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강원도 각 지역과 강원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원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활용기관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의 거점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강원학 연구센터의 안정적 존속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 운영의 안정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과 재정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지역학과 관련한 문헌/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학센터 사례 분석을 하여 국내 지역학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타 지역 사례 분석은 실제 지역학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강원도 각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학연구센터 순회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강원학연구센터 순회세미나는 강원도 지역을 3개의 권역(영서 북부권, 영서남부권, 영동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현재 지역학 현황 및 강원학연구센터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순회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 진단을 하고 이후 각 지역과 강원학연구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협업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하였다. 센터의 운영 방향과 강원학 중점 추진 의제는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많이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강원학연구센터의 운영방향을

진단해보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원학과 강원학연구센터가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II. 국내 지역학 및 연구기관 현황

1. 국내 지역학 및 연구기관 현황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이 활발해졌다. 외부적으로는 20세기 말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의 거대 흐름 속에서 지역 공동체 문화 전통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지역공동체와 문화 전통 연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민의 정체성 및 문화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지역학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학제 간 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엔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4년 서울 정도 600년을 기점으로 서울학연구소가 창설된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활발히 설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학회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역학 연구기관들은 최근 지역 분권이 강조되면서 좀 더 활발히 설립되고 있다.

광역시도의 지역학 연구기관 특징을 살펴보면 16개의 광역시도 중 광주와 대전, 전남, 전북, 경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지역학 전담 연구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제의 시작 이후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립이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활발히 설치되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장의 사적 판단에 따라 유지와 소멸이 결정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표 II-1> 지역학 연구 기관 현황

구분	지역학 연구 기관수	기관 명칭	운영주체
서울특별시	1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대학 소속
부산광역시	3	-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대학 소속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	대학 소속
인천광역시	1	- 인천시립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대학 소속
광주광역시	0		
대전광역시	0		
울산광역시	1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기도	1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강원도	1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충청북도	2	-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대학 소속
		-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소속
충청남도	1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학연구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라북도	1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라남도	1	- 호남학연구원	대학 소속
경상북도	2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 대구경북학회	민간단체
경상남도	2	-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대학 소속
		- 경상남도 의회 경남학연구회	
제주도	4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대학 소속
		- 제주학연구소	민간 단체
		- 제주학회	민간 단체

광주의 경우 광주학 전담 연구 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광주문화재단에서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학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지역학으로서의 광주학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고,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광주학 관련 자료 기증 등을 받아 지역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모으고 있고 광주학 전담 연구 기관 설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대전학 전담 연구 기관은 2018년 현재 없지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학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역사와 뿌리, 찬란한 문화유산, 지리와 환경, 과학의 선진화, 예술 문화와 창조라는 5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대전학 아카데미와 대전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전북연구원내 전북학연구센터가 2018년 신규 설립되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호남문화연구소와 호남학연구단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있어 지역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지역 사례

2.1 서울학연구소

2.1.1 서울학연구소 설립 및 사업 방향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로 1993년 서울 정도(定都) 6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한시적인 목적성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마치고 난 후 서울의 정체성을 규명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 당국자 및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서울과 도시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립대가 서울학연구소를 맡아 계속 연구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학계 전반적으로 분화된 학문을 다시 종합하자는 흐름이 있어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위해 방향을 잡았다. 국문학, 사회학, 역사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과 더불어 건축, 도시, 조경 등 도시 관련 학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별 분과학문만으로는 오랫동안 축적된 초거대 국제도시의 서울이라는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학'이라는 지역학으로서의 서울 정체성 규명이 필요하였다.

서울학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서울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서울학을 육성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전파하여 서울 시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¹⁾

2.1.2 서울학연구소 주요 사업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자 1993년부터 매년 서울학 관련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는 학술지 「서울학 연구」에 실어준다. 서울과 관련된 논문을 한편이라도 써 본 사람은 다음에 자기 연구

1) 이익주(2016), "서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국학진흥원 2016년 안동학포럼 자료

분야로 서울학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학을 진흥시키는데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학연구소는 예산이 없을 때도 연구비 지원 사업은 계속 유지하였다.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서울학연구소는 기초 연구에 충실하고자 한다. 탐사팀을 조직하여 국내외 산재한 서울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있다. 사료 탐사는 국내외 각종 기관 및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 관련 희귀사료를 직접 탐사하는 방식(발굴 자료 탐사)과 연대기 등의 중요 자료에서 서울 관련 기사를 추출, 정리, 색인화 하는 방식(기초 사료 탐사)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탐사의 성과는 모두 DB화하여 자료의 검색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학술용역사업으로는 동아시아 수도 연구, 서울역사박물관 대학 운영, 서울 공간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유물 수집 종합계획,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연구 등이 있다.

서울학연구소는 관련 연구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 서울학 정례발표회, 서울학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대학 교수 등 전문 연구자들의 경우 자기 분야 외의 전공자를 잘 만나지 못하는데 이 벽을 허물어주는 것이 지역 연구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연구소는 관련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제는 역사하는 사람과 건축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별, 전공별, 관심주제 별로 세미나, 심포지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연구가 가능해지고 협업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서울학연구소는 강좌 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대학의 '서울의 고전강좌'라는 지역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4년의 경우 '한양의 관청'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였는데 건축, 역사, 군사, 미술, 음악, 문학, 복식, 의학, 과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강좌를 통해 한양에 관청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조망하였다. 서울학연구소는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정규 강좌도 개설하였다. 서울학연구소의 연구교수들이 팀티칭으로 매학기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의 인기강좌 중 하나이다. 서울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1.3 서울학연구소 조직 및 운영²⁾

서울학연구소는 교내외의 학계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발전위원회와 교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기획학술부, 연구탐사부, 시민생활교육부의 실무기구를 둔 체제로 출범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서울 600년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과도한 증가로 전문위원회가 사실상 연구소의 전체 사업을 규율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으나 연구소 체제가 정비되고 내실 위주로 운영되면서부터 전문위원회보다는 실무기구의 역할이 중시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1998년부터는 시민문화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 직속의 서울시민대학으로 이관되고 서울 사료탐사의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시민생활교육부를 폐지하고 자료실을 신설하여 학계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학연구소는 현재 운영위원회, 「서울학연구」 편집위원회, 「서울학연구」 윤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와 3개의 부서(연구기획부, 자료탐사부, 학술교류부)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학 관련분야의 권위자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연구소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서울학연구」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의 심사를 「서울학연구」 윤리위원회는 「서울학연구」를 발간할 때 지켜야 할 윤리지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2 제주학연구센터

2.2.1 제주학연구소 설립 및 사업 방향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 내 설치되었고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우수 사례로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례의 제도화를 통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성을 담보해 나가고 있는 측면이다.

2)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 내용 참조(<http://seoulstudies.uos.ac.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3.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생략)

제주도는 독자적인 전통 문화(언어, 민속, 역사, 자연생태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특한 지역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나 체계적, 종합적 연구가 부족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으며 제주인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과 관계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초체계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국내외 제주학 연구자의 결집과 제주학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토대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이 필요하고 제주학의 정립과 발전 확산을 위해 공공성을 띤 제주학 거점 연구 기관 설립을 위해 제주학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2.2.2 제주학연구소 주요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연구와 대중화를 위해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 제주학 교육 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연구, 제주어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2> 제주학연구원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 제주학 기초자료, 연구 성과, 문화 자원 DB화 -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자료, 민속자료, 구술자료, 영상 사진자료, 해외 자료 DB화 -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한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전체 37,233건, 2017년 기준)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및 연구지원 사업	- 2013년~2016년 : 총 28건(자체 7건/공모과제 21건)
제주학 총서 발간 (번역서 포함) 및 출판지원사업	- 2016년~2016년: 총 22건(진행 4건/공모 8건, 자체 10건)
제주학대회	-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 제주학 학술사업 지원 - 제주어 세미나 - 제주학 도서 사진전
제주학 교육사업	- 제주학 아카데미 :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제주역사편찬사업	- 승정원일기 번역사업 - 일제하 신문기사 자료집
제주어 연구사업	- 제주어 자체연구사업 - 제주어 연구지원사업 - 제주어 교육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 도서관 1개 기관 / 학회 2개 기관 / 박물관 1개 기관 - 연구원 1개 기관 / 방송사 2개 기관 / 신문사 2개 기관

자료 : 제주학연구원 내부자료

2018년에는 ▲ 제주학 아카데미 구술사 강좌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 제주학 총서 발간 지원 사업 ▲ 제주학 관련 번역출판 지원 사업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 일제하 신문기사 편찬 ▲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 ▲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 일제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등 공기관대행사업에 공모사업(지역문화 컨설팅사업)까지 모두 29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에 「제주학연구원 운영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는 「2차 제주학연구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제주학연구센터의 조직 및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SWOT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하여 비전 및 연구목표와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림 II-1> 제주학연구센터 비전 및 목표

제주학연구센터는 아시아 최초로 이탈리아 샤르데나 칼리알리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인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리와 모니터링(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and Monitoring, STMM)’이란 주제로 관련 대학원 석사 과정에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지식교환과 연대의 가능성이 증진되었다. 여기에 동아시아 최초로 국제저명저널(SCI급)에 학술 논문 3편을 동시에 수록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2.3 제주학연구소 조직 및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기획팀(2팀), 아카이브관리팀, 제주어연구팀, 기획사업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4월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전체 정규계약직은 모두 11명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5년 4억, 2016년 8억, 2017년 14억, 2018년에는 30억 까지 꾸준히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며 성장해왔다. 재정지원의 안정성은 지역학 연구기관의 본래 목적인 지역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설립초기(2011년)부터 독립을 목표로 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일정 기간 위탁 운영되었기 때문에 「2차 제주학운영센터 기본계획」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을 위한 추진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지역분권의 완성은 지역학문’이라는 모토로 제주학연구센터는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를 위해 제주연구원 산하에서 별도기관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다.

2.3 대구경북학연구소

2.3.1 대구경북학연구소 설립 및 사업 방향

대구경북연구소는 2005년에 개소하였다. 대구경북원이라는 큰 틀에서 각종연구 및 학술행사 진행과 대구시, 경북도의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민원탁회의”, “대구시민주간” 등의 보조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구경북 정신문화를 담기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구경북학센터 소속연구원들이 대구시 경북도의 기본 정책과제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대구경북학센터를 대구경북학연구소로 바꾸고 관련 연구원을 보강하면서 대구경북학연구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5년 개소 후 2007년까지 각종 기초연구 및 「대구경북학논총」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였다. 연구원 내외 학자들로 “대구경북학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수차례의 외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대구경북학연구소는 대구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정신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지역민들의 삶의 긍지를 되살리고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제 연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3> 대구경북학연구소 활동방향 및 연구소 역할

구분	내용
활동방향	지역은 역사, 사회, 환경, 정신문화 등 공동체적 요소 포괄 - 지역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 이해 불가능
	대구경북이 축적한 문화적 특성 연구를 통해 장소 경쟁력 제고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학·인문학·정체성 연구를 위한 통합적·융합적 연구 시도
	대구 경북학 관련 민간 및 공공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연구 인큐베이터
연구소 역할	지역 정신문화 - 대구경북 정신의 독창성,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성, 21세기 시대 변화와 대구경북 인문 전통의 조화 가능성 연구 선도 - 지역학·인문학 전문가와 협력해 대구경북학연구소 자문위원회 및 정신문화포럼 구성 - 대구경북학 심포지엄 및 국제세미나 개최
	교양 문화 교육 - 시도민 문화교육 추진 - 교양강좌, 전문강좌, 초청 강연 프로그램 개발
	아카이브의 중심 기능 수행 - 역사문화자료 수집과 기초자료 조사 - 대구경북학 관련 자료 아카이브 구축

2.3.2 대구경북학연구소 주요사업

대구경북학연구소는 지역 정신 및 지역 정체성을 위한 각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진짜 대구를 말해줘」를 발간하였고, 2007년 기본과제로 「21세기 대구경북인 상(象)」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경북의 혼, 한국 정신의 창 등을 발간하였고 2010년부터 지역 각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경북 정체성 포럼을 운영하였고 단행본 및 소책자 3종을 제작 배포하였다. 21세기 청소년 롤모델 시리즈로 창조의 멘토 33인, 사회정의 멘토 33인, 리더십의 멘토 33+1 등 단행본 3권을 발간하였다. 멘토 시리즈는 대구경북학센터, 국학진흥원, 지역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였고 교육청과 MOU를 맺어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기도 하였다.

지역학 전문 학술지인 「대구경북연구」는 대구경북학센터 책임자가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겸임하였다. 2017년까지 제16권 제2호가 발간되었다 2016년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대구경북연구는 2014년부터 대구경북학회³⁾와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소는 대구경북학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학술지 공동편집위원회 구축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사업, 정책 세미나 공동개최, 연구결과물 공동 발간 또는 연구지원 등을 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지역학 대학교재인 「대구 경북의 이해」를 공동 발간하여 경북대에서 강의 교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2017년은 대구경북학센터와 대구경북학회가 주축이 되어 「대구 시사 편찬 기초연구」를 1년간 진행하였고, 공동워크숍으로 국제학술세미나인 “대구와 교토의 도시사 연구와 아카이브”와 공동워크숍 “지역정체성 실제 찾기” 등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대구시민주간 기념세미나(대구,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억의 재구성), 공동학술세미나(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미래 대구경북의 선택) 등을 대구경북학회와 공동 진행하고 있다.

2.3.3 대구경북학연구소 조직 및 운영

대구경북학센터는 초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장을 위촉하였으나 3대 소장부터는 대구경북연구원 내부 선임급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행정학 전공자 4명이 보직을 담당하였다.

대구경북학연구소는 2018년 2월부터 대구경북학연구소로 명칭을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현재는 대구경북학연구소장, 지역학연구위원장을 주축으로 총 6명이 대구경북학연구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문기구로는 대구경북학회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학, 인문학 관련 기관 대표자 1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대구경북학회는 2012년 초 결성, 지역의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운영위원 15명, 회원 90여명. 다양한 학교와 전공자들로 구성.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행정학, 지리학, 역사학 등 교수와 연구기관들 소속 연구원 중심.

2.4 인천학연구원

2.4.1 인천학연구원 설립 및 사업 방향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 2002년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인천시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천학연구원은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천 사회의 현실적인 역동성을 인문학적으로 규명하여 도시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천은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인문학센터, 인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문화재단, 인하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등 인천학과 관련된 기관이 많이 있어 역할 분담이 필요했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은 대학에 부설되어있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4.2 인천학연구원 주요 사업

인천학연구원은 매년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5~6권의 저서를 출판하고 있다. 총서 발간을 할 때 외부 출판사를 통해 출판을 하거나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출판사 등록을 한 인천학연구원에서 직접 출판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인천학연구원은 현재까지 60~70권의 자료총서 및 연구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중 영미계 외국인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인천에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연구를 통해 인천의 모습을 재발견한 책인 「개항기 인천의 문화접변과 시각적 모더니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출판문화진흥원의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인천을 여행한 여행자들의 기록들을 포함해 인천에 거주했던 외국인들 중 외교관, 군인, 언론인, 선교사, 교육자, 사업가 등 다양한 배경의 서양인들의 기록 원전을 발굴한 후 이를 번역해 홍보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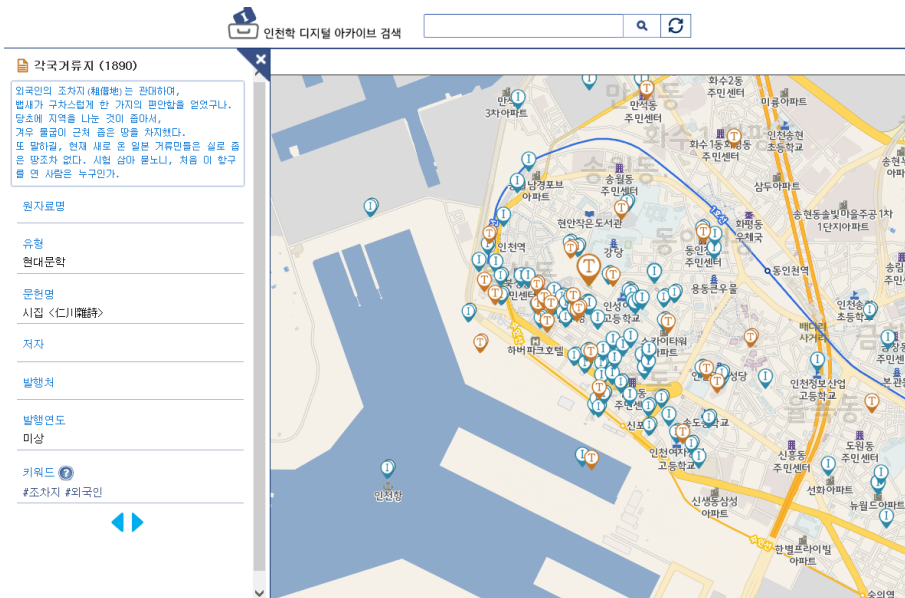
인천학연구원 학술지인 「인천학연구」는 2014년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2002년 설립 이후 「인천학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일 년에 한번 발행하다 등재지로 선정된 이후 1년에 2번씩 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인천학연구」 원고 모집이 어려워 2백만원씩 원고료를 지급하다, 2009년 등재후보지가 된 후로 인천사람에게는

50만원, 외부 지역 사람에게는 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 등재지가 된 이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학연구원은 매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년에 4~5회 인천학세미나와 같은 학술대회를 열어 인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 학술세미나를 통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지역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인천학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교양과목으로 지역학 관련 2과목을 개설하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안에 지역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수구의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연수 구민 대학에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문학 강좌를 설치하여 인천의 역사, 인천의 설화, 인천의 지명 유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인천학연구원은 지역학 연구 성과를 관리하고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에 새롭게 개선된 아카이브를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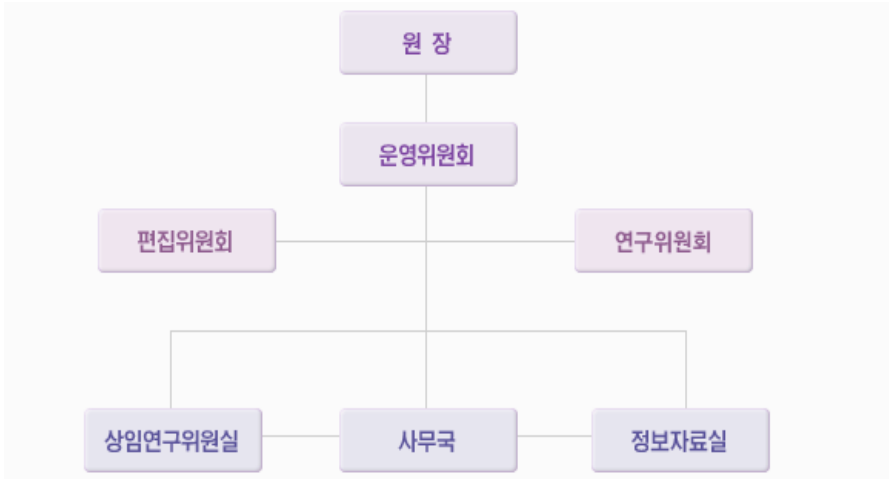


<그림 II-2> 인천학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

전면적으로 개편된 아카이브는 주로 개항 이후의 사진, 지도자료 등 이미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현재 인천 지도에 고지도를 겹치게 하여 이미지, 사진, 문학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에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국가기록원, 규장각 등 관련 기관의 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2.4.3 인천학연구원 조직 및 운영

인천학연구원은 운영위원회를 기 축으로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위원회는 주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물의 평가 등을 담당하고, 편집위원회는 인천학연구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연구위원 2인과 사무국 직원 1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II-3> 인천학연구원 조직도

2.5 경기학연구원

2.5.1 경기학연구원 설립 및 사업 방향

경기학연구센터는 1999년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 매장 문화재 연구원으로 개원하여 2005년 전통문화연구실을 개설하였다. 2009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소속 전통문화연구실에서 경기학연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지금의 명칭인 경기학연구센터로 변경하였다.

경기학연구센터는 전신인 전통문화연구실의 기본사업을 확장하여 경기도의 정신 문화, 유무형의 문화 유산을 조사, 연구, 보존, 전승,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 외에 외부 기관의 위수탁 보조, 용역사업을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으로 경기도의 규명과 확립에 일조하고 있다.

2.5.2 경기학연구원 주요사업

경기학연구센터의 초기사업은 경기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관련 자료를 링크하는데 주력하였다. 현재는 경기도 옛길 사업, 시민문화대학, 경기도 인물평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경기학연구센터 아카이브 사업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함께 경기학메모리를 운영 중에 있다. 경기학메모리는 경기도에서 발간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역사, 문화, 행정, 일상자료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상의 서비스이다. 경기도 지역에 관한 자료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개인 등의 협력을 통하여 약 14,000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인물 평전은 경기인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와 관련된 인물을 선정한 후 원고를 의뢰하여 작성하고 현재 민음사에서 출간하여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2018년에는 민족주의 지식인인 안재홍의 생애를 다룬 안재홍 평전을 발간할 예정이고 앞으로 경기도와 관련된 인물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용교재로 경기도 역사여행 등 교재편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교재편찬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교재로 활용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배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경기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각 지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경기마을기록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지 사업으로 마을의 역사부터 생활사, 지역 주민 구술 채록 등을 하여 개별 마을별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옛길사업은 경기학연구센터 중요사업 중에 하나로 2011년 경기 남부지역 수원-화성-오산 3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조사하던 중 정조대왕과 연관된 광범위한 문화 유산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 곳을 현대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⁴⁾

경기학연구센터는 연구자 네트워크가 지역학 연구센터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 문화원, 문화재단, 관련 교수진 등을 직접 만나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교육 등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기관별 네트워크는 힘들기 때문에 먼저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의 폭을 확장시켜 나갔다.

4) 윤소영(2018), “경기도 옛길 사업의 이해” 「제14차 한국지역학포럼」

3. 지역학 연구기관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기초 연구 충실

지역학 연구기관들은 기초 연구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학연구기관이 설립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초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연구 결과 활용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 중심 학술지를 통한 지역 연구 심화

인천학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등 많은 지역학 연구기관이 학술지를 발간하여 지역학 관련 연구를 심고 있다. 특히 서울학연구소, 인천학연구원은 등재지로 대구경북학연구소는 등재후보지 학술지를 운영하여 지역학 연구 중심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지는 지역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학 홍보

지역학이 단지 학술적 연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결과물을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주민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빠른 성과 확산의 방법은 교육이기 때문에 먼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학을 알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 학술 행사 개최를 통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연구기관은 연구자 및 기관 간의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세미나, 학술행사 등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지속적으로 지역학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1. 강원학연구센터 추진과정 및 운영현황

강원학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역학 활성화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1998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강원학의 체계적 정립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고 1999년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 학술세미나 개최, [새천년과 강원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강원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 도내 지역연구 전문가를 중심으로 「강원학연구회」가 결성되었고 2000년 7월 [강원학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및 강원학 연구회 발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역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지역학 연구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며 강원연구원내에 2002년 강원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초창기 강원학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강원학 연구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원학 분야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활동 지원, 강원학 관련 연구 성과 홍보 및 학제 간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조성사업, 강원학 관련 연구 성과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한 발간사업 추진,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산업화 추진이다.⁵⁾

5)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20년사

설립 초기 강원학연구센터는 위탁연구과제(15건), 수탁연구과제(3건), 강원학 총서(8종), 강원학 학술총서(9종), 학술지(2건)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개발 및 효율성 위주의 사회분위기와 함께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2010년 강원학연구센터는 폐지되었고 강원학연구의 중심점 부재 등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개별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가 없었고 강원학 연구가 지역민과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강원학 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표 Ⅲ-1> 강원학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구분	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연구총괄
위탁연구	2002	강릉단오제 연구	장정룡 강릉대학교수
		강원의 풍수와 인물	옥한석 강원대 교수
	2003	정선아리랑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강원의 동족마을	오영교 연세대학교수
		관동팔경과 누정 문화	박영주 강릉대학교수
	2004	강원도와 고구려 연구	금경숙 고구려연구재단
		강원도의 한시 이해	김풍기 강원대학교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인 기초 조사연구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원
	2005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조사 연구(길림성)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원
	2006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조사 연구(흑룡강성)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원
		생애사를 통해본 강원도민의 삶과 문화	한건수 강원대 교수
		강원도 전설의 유형과 분포	전신재 한림대 명예교수
		한국의 작가, 강원도의 작가	최형순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7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조사 연구(요녕성)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원
2009	강원의 전설 2	전신재 한림대 명예교수	
수탁연구	2006	강원학 교육교재 제작	김풍기 강원대학교수
		비지정 석조문화재 전수조사	원영한 강원대명예교수
	2007	강원의 뿌리를 찾아서 만화제작	지경배 강원발전연구원

Ⅲ.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분석

구분	연도	과제명	연구책임자/연구총괄
강원학총서	강원학총서 1	강릉 단오제	장정룡 강릉대 교수
	강원학총서 2	강원의 풍수와 인물	옥한석 강원대 교수
	강원학총서 3	정선아리랑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강원학총서 4	한국 DMZ, 그 자연사적 탐방	함광복 DMZ연구소장
	강원학총서 5	강원의 한시	김풍기 강원대교수
	강원학총서 6	강원의 전설	전신재 한림대명예교수
	강원학총서 7	강원의 전설 2	전신재 한림대명예교수
	강원학총서 8	UNESCO 생물권보존지역 설악산 식물생태도감	홍문표, 이호준
강원학학술 총서	학술총서 1	강원의 동족마을	오영교 연세대교수
	학술총서 2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전신재 외
	학술총서 3	강원도와 고구려	금경숙 고구려연구재단
	학술총서 4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길림성)	전신재 외 6인
	학술총서 5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흑룡강성)	전신재 외 4인
	학술총서 6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고뇌	변용환 한림대 교수
	학술총서 7	강원도 양극화의 현황과 문제점	임의영 외 5인
	학술총서 8	세계 속의 강원 경제	김정호 외
	학술총서 9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요녕성)	전신재 외
학술지	2005	창간호/ 강원도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오영교 연세대학교 외
	2006	제2호/ 강원도 주요 도시의 정치의식	김원동 강원대교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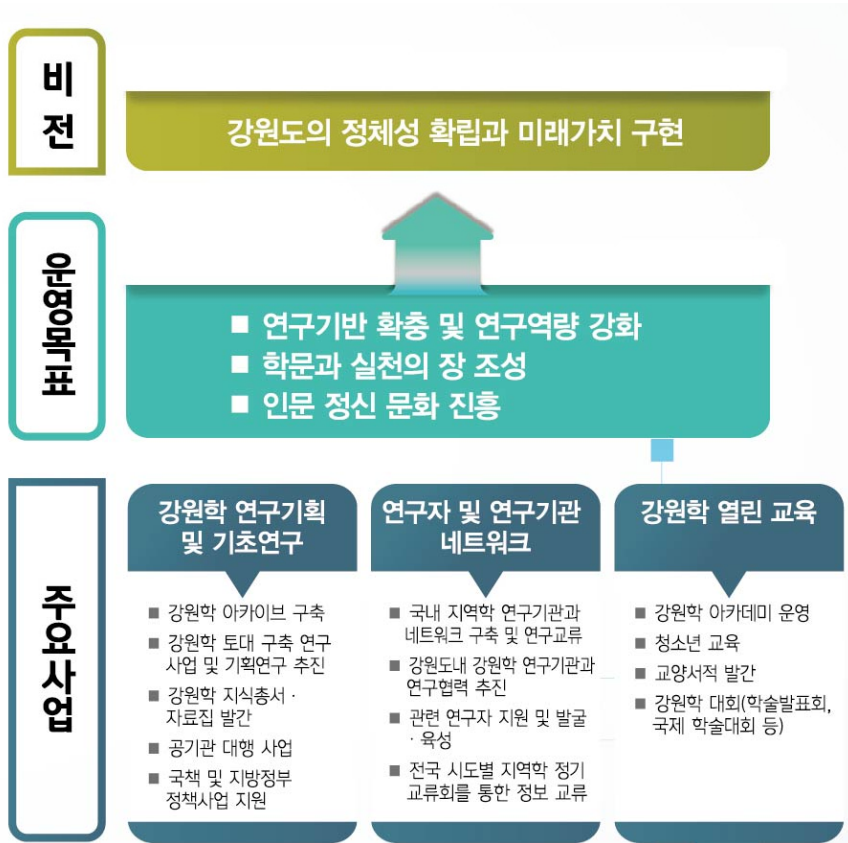
2016년부터 강원연구원은 강원포럼을 통해 강원학연구센터의 부활 필요성을 집중 부각하였고 2017년 6월 16일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⁶⁾가 제정되면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8년 개소식 및 기념포럼을 진행하고 연구공모사업 진행, 아카데미 운영, 총서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6)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참고자료 별첨

<표 Ⅲ-2> 강원학연구센터 연혁

1998년	강원도내 민·학 전문가 중심으로 설립 필요성 제기, 공론화
1999년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수행
2000년	「강원학연구회」 결성
2002년	강원연구원 부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2010년	강원연구원 조직 개편으로 「강원학연구센터」 폐지
2016년 7월·2017년 2월	강원연구원 강원포럼을 통한 강원학연구센터 부활의 필요성 집중 부각
2017년 6월 16일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년 10월 26일	강원연구원 내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2017년 11월 22일	「강원학연구센터 운영계획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7년 12월 22일	강원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신규 채용
2017년 12월 27일	강원학연구센터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8년 01월 10일	강원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 포럼 개최
2018년 02월 05일	강원학연구센터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학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은 강원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원도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원학의 뿌리 기반 조성 강화,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에서의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도내의 다양한 지역학 연구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강원학 연구의 중추기관 역할 담당, 강원학 연구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향유하여 도정의 든든한 뿌리찾기 정책으로 자리매김 유도, 강원학을 확고히 정립하고 강원도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림 Ⅲ-1> 강원학연구센터 비전 및 주요사업

강원학 연구센터의 2018년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학 연구 기획 및 기초 연구에 충실하고자 한다. 강원학의 ‘학(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있어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 연구사업 진행을 수행할 계획이다.

- 강원도 인문·사회와 더불어 경제·지리·자연과학·건축·경관 등 다학제적 학문 육성
- 강원도의 고유 문화를 발굴·계승함으로써 강원학 연구 활성화 기여
- 강원학 연구를 심화시키는 토대 마련 및 실천적 학문으로 발돋움

- 강원학 기초 연구의 축적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다양한 콘텐츠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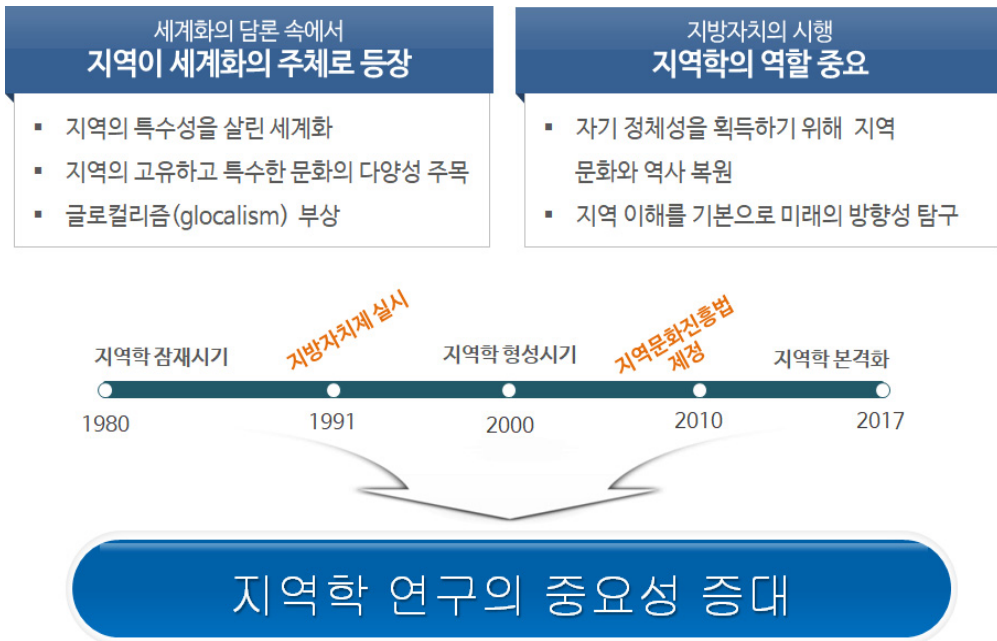
둘째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합적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동안 강원지역의 대학연구기관, 학회, 단체, 관공서 등에서 축적한 다양한 분야의 강원지역 관련 연구 및 사업 성과물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하고, 강원학 관련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축적된 자료들을 가공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공한다면 강원학 연구를 심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지역학 연구자 및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강원학 관련 연구자들 간의 교류는 강원학 연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학제간의 연구 및 강원학 연구의 붐업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원도내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 연구기관, 민간 연구단체 등 강원학 관련 연구자들 간의 유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 세미나, 학술 세미나, 강원학 대회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범위를 강원도로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로 확산하여 전국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각 국가와 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호 간 교류를 진작시켜 강원학 연구의 진흥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학의 보편화 및 대중화 선도이다. 강원학 진흥의 취지를 도내외적으로 공감,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열린 강원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한다. 강원학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거점 지역별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후속 모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성 확립, 연구 성과물 홍보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강원학 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역학 관련 소식을 전함으로써 강원도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강원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변화 요인

20세기 말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의 담론이 대두되었다. 세계화의 담론 속에 국가라는 단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 지역이 세계와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연구의 당위성이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세계문화 다양성선언(2000)과 협약(2005)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특수한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글로벌리즘에 대응한 글로컬리즘이 부상하면서 지방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목적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에 기반한 정체성 연구 중심으로 지역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림 Ⅲ-2>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 증대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역이 국가의 종속된 개념에서 자율적 주체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 확립이 요구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 발전 가능성 모색 등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그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지역학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되었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학문적 접근이 많아지면서 지역학이 학문적 영역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0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발표한 8대 과제를 살펴보면 고유의 지역 문화가 생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학의 활성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비하게 되었다.

<p>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8대 과제 (2013.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학의 활성화 항목 포함
<p>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문화기본법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p>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이 최대 화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면서 지역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지역 이해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 강화 등에 대한 요구 증대

<그림 Ⅲ-3> 지역학 관련 정책 부각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지방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학 부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헌안을 살펴보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명한 점 등은 향후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할 증대에 따른 지역 이해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 강화 등은 더욱 더 그 요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지역문화분권 실현과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는 주민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형성해 온 문화자원들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역동적인 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문화비전 2030」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를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지원으로 인문 강연, 인문 융합프로그램, 인문 동아리 운영 등 인문 저변 확대로 인문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계층과 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프로그램 진행을 확산하려고 한다.

또한 문화비전 2030에서는 문화자원의 기록 보존 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자원 기록 및 보존·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아카이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공립 및 민간 문화기관 등의 아카이빙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주에 관한 자료, 유무형 문화재, 각종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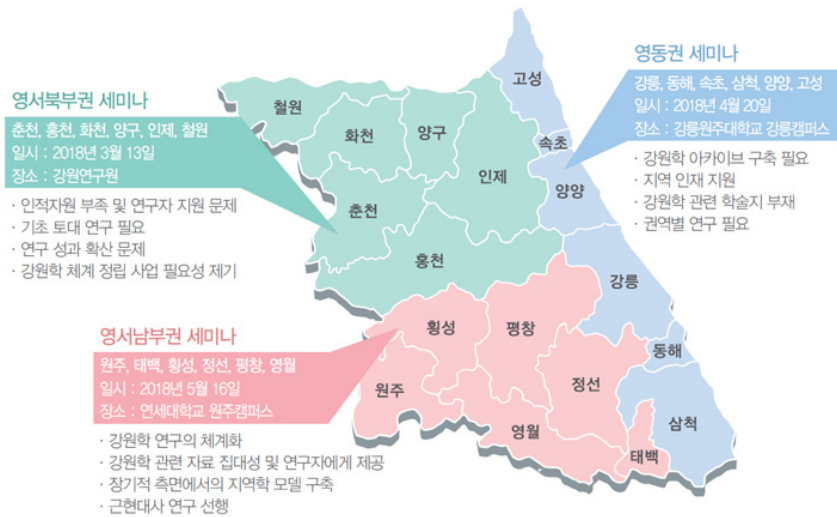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고 지역은 이런 일상적인 문화 활동이 구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한 현실 진단과 미래 방향성을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이해를 기본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지역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지역 내 의견 수렴

순회세미나,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강원학연구센터의 기본방향 및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강원학 연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 강원학연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들을 수 있었고, 강원학연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었다.

3.1 순회세미나 결과 정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원학연구센터 순회세미나를 지난 3월부터 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그림 Ⅲ-4> 순회세미나 개최 현황

3월 13일 영서북부권역 세미나를 시작으로 4월 20일 영동권역, 5월 16일 영서남부권역 등 총 3회에 걸쳐 강원학과 관련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문화원, 문화재단, 박물관, 학계,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층위에서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였다

3.1.1 영서북부권역 세미나

3월 13일 영서북부권역 순회세미나에는 장정룡 강원학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강정식 흥천문화원 부원장,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노성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연구원, 박진서 화천박물관장, 윤형준 인제군 학예연구사, 정두섭 양구백자박물관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영서북부권역 세미나에서는 크게 인적 자원 부족, 기초·토대 연구 필요, 연구 성과 확산 문제, 연구자 지원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그림 Ⅲ-5> 영서북부권역 순회세미나

먼저 강원학연구가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강원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후학 형성이 되어야하지만 현재는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향후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후속 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역학은 실용적, 실천적 학문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립과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발굴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학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삶

의 질 향상과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고 나아가 소득증대까지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까지 지역학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자도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과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강원도는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인문자산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접경지역을 여행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단위로 DMZ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사람들에게 강원도의 역사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거 같고 이런 것을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개발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특징을 찾아야 지역의 미래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지역학 연구기관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이렇게 살만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문화를 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민속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을 때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형성될 수 있다.

통일대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강원도는 남북이 분단된 유일한 도이고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유일한 분단 도라는 것은 강원도의 장점일 수 있다. 분단시대의 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기록, 서민들의 삶과 흔적 이러한 인문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성을 찾으면 통일강원시대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나 토대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고 이런 토대 연구 성과를 지역에 알리고 확산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 수립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교육은 가장 빠른 성과 확산의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차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학 연구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및 강원학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1.2 영동권역 세미나

4월 20일 강릉에서 진행된 영동권 순회세미나에는 이종덕 강릉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흥우 강원민예총 회장, 배재홍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정종천 속초박물관 학예 연구사, 전유길 양양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장, 김장민 고성문화원 사무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기층 문화 연구, 지역 인재 지원, 권역별 연구, 강원학 관련 학술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림 Ⅲ-6> 영동권 순회세미나

강원학 관련 자료 중에 절판되었거나 시판되지 않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강원학연구센터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강원학 도서관을 구축하여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쉽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원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 구축이 선행되어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 구축에는 각 지역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의 기존 자료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릉문화재단의 경우 문학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 중에 있고, 고성문화원의 경우 최근 소장자료 전수조사 및 목록화 작업을 진행한 결과 7천 여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야 한다.

춘천권과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 발굴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지역학이 20년 넘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강원학과 관련한 지역의 인재풀이 빈약한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도 관련 연구를 하여도 강원도 중심의 학술지가 없어 실을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강원학과 관련된 학술지를 발간하여 등재지로 만들어야 향후 강원학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강원도와 관련된 학술지나 강원지역을 연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

강원도 지역을 18개 시군별로 세분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을 너무 세분하면 시군별 연구자 편차도 심하고 연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속초, 고성, 양양의 경우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권역으로 묶어서 특성화된 연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영동북부권역의 경우 접경지역, 실향민의 문화 등 이 권역만의 특징적인 정체성, 문화적 특색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시군별 연구 보다는 권역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춘천권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대해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지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학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 지역민이 스스로 지역에 대해 알아가고 지역에 대해 서비스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원학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양한 연구 성과물이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3.1.3 영서남부권역 세미나

5월 16일 원주권 순회세미나에서는 오영교 연세대학교 교수,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이영식 강원도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이현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윤병화 세경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그림 Ⅲ-7> 영서남부권역 순회세미나

원주지역은 강원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원주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지역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이유,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찾는 실용성을 전제하여야 한다. 강원학연구센터가 2010년 폐지되었다 다시 재설립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한 강원학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강원학이 향후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과 함께 강원학연구의 체계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구자 네트워크 및 지원 측면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도 지역을 엮어내고 여러 연구자를 묶어서 지역적 연계와 서로 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집적시켜주는 역할을 강원학연구센터에서 담당해주어야 한다.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연구자의 성과를 편휘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고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원주지역에서도 강릉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강원학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원지역과 관련한 연구를 하려고 할 때 관련 자료를 구하기 힘든데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자료를 집대성하고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먼저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과 관련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다. 특히 사라져가고 사장되어 가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기증받아 모아야 한다.

강원학연구센터가 단기간에 모든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지역학 연구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인문학 연구가 토대가 되어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학 연구가 이러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기록 등이 선행되어야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데 큰 토대가 될 수 있다.

학술적 측면 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강원도민의 참여율을 높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 연구가 양성, 시민 기록가 양성, 아동부터 성인까지 계층별로 지역을 알 수 있는 교재 개발, 시민 교육 등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1.4 순회세미나 종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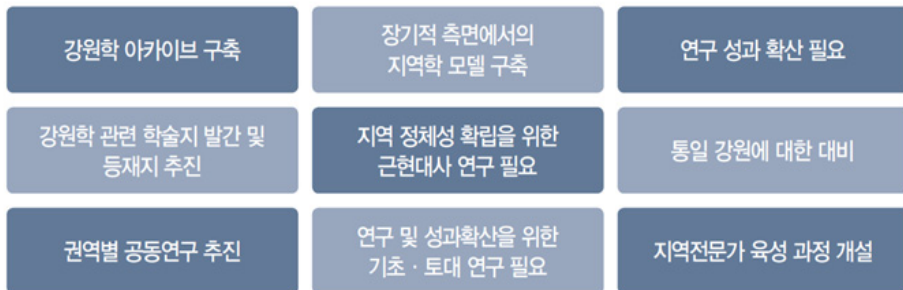
순회세미나의 전반적인 의견을 정리하면 먼저 강원학연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로는 강원학 관련 인적 자원 부족, 강원학 관련 자료 취득의 어려움, 강원학 관련 학술지 부재, 기초 자료 부족 등이다. 강원학연구가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강원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지역 연구자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강원학 관련 자료 중에 절판되거나 비매품 자료가 많아서 강원지역 연구를 할 때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강원학 관련 연구 목록과 연구자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강원학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강원도 중심의 학술지가 없어 강원학 관련 연구를 하여도 논문에 실을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기록, 서민들의 삶과 흔적 등 기초 자료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그림 Ⅲ-8> 강원학 연구의 현실

이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출범하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순회세미나에서는 강원학연구센터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다.



<그림 Ⅲ-9> 강원학연구센터의 역할 제언

먼저 강원학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강원학연구센터가 자료를 집대성하고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강원학 도서관을 건립하여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쉽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강원학 관련 학술지를 발간하여 등재지로 만들어야 향후 강원학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18개 시군을 세분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을 너무 세분하면 시군별 연구자 편차도 심하고 연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연구는 단기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

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실제 적용 가능한 지역학 연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구술 기록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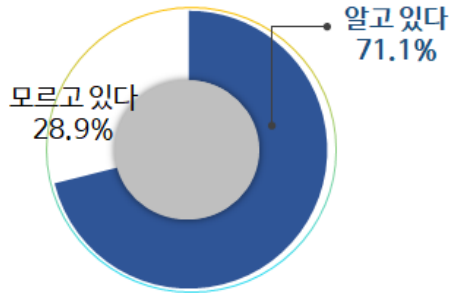
교육은 가장 빠른 성과 확산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차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남북이 분단된 유일한 도이기 때문에 미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강원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남북 문화 자산 교류, 역사 자원 발굴 등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지역학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엮어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3.2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정리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순회세미나와 아카데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순회세미나는 총 38부, 아카데미는 총 12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강원학 인지여부, 관심여부, 파급효과 및 향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 등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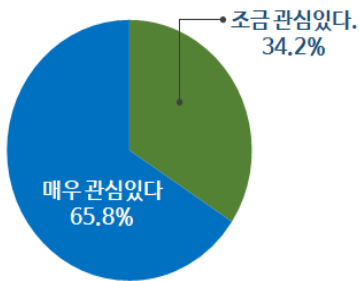
3.2.1 순회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

먼저 순회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응답자 중 강원학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7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강원학 순회세미나의 경우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28.9%를 차지하여서 향후 강원학 연구센터가 좀 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원학아카데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강원학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83.5%로 일반인들의 경우 강원학에 대한 인지 정도가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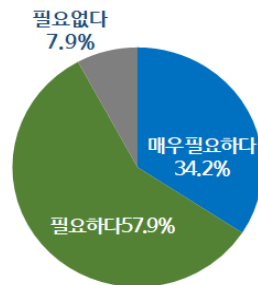


<그림 Ⅲ-10> 강원학에 대한 인지 여부

‘강원학’, ‘지역학’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금 관심있다, 매우 관심 있다는 의견이 100%로 강원학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학’과 함께 ‘춘천학’, ‘원주학’ 등 시군 단위의 지역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 57.9%, 매우 필요하다 34.2%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필요없다는 의견도 7.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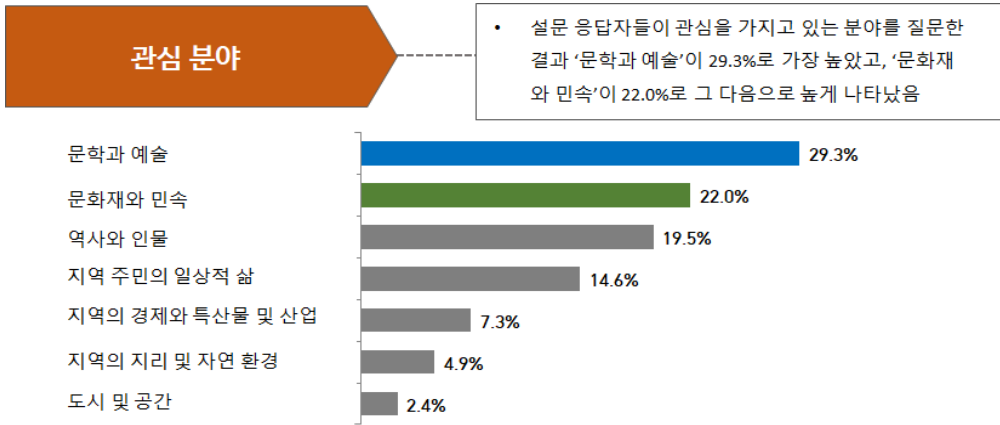


<그림 Ⅲ-11> 강원학에 대한 관심 정도



<그림 Ⅲ-12> 시군단위 지역학 필요성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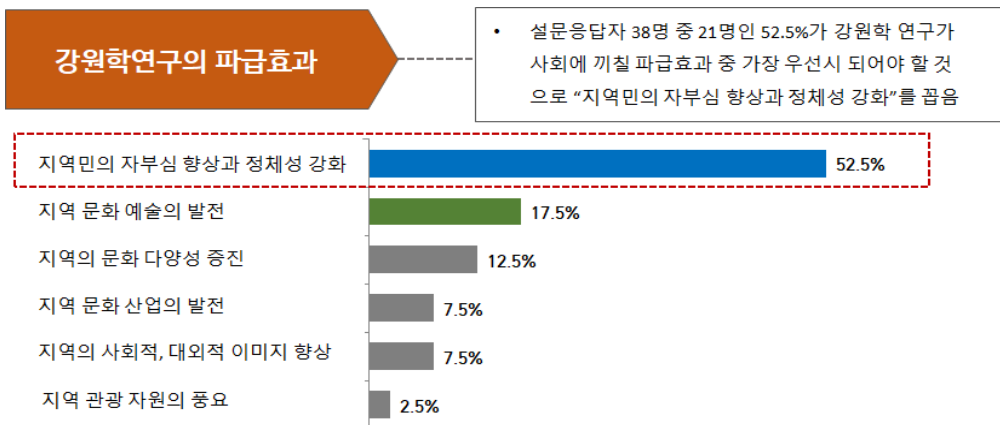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질문한 결과 ‘문학과 예술’이 29.3%로 가장 높았고, ‘문화재와 민속’이 22.0%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3> 강원학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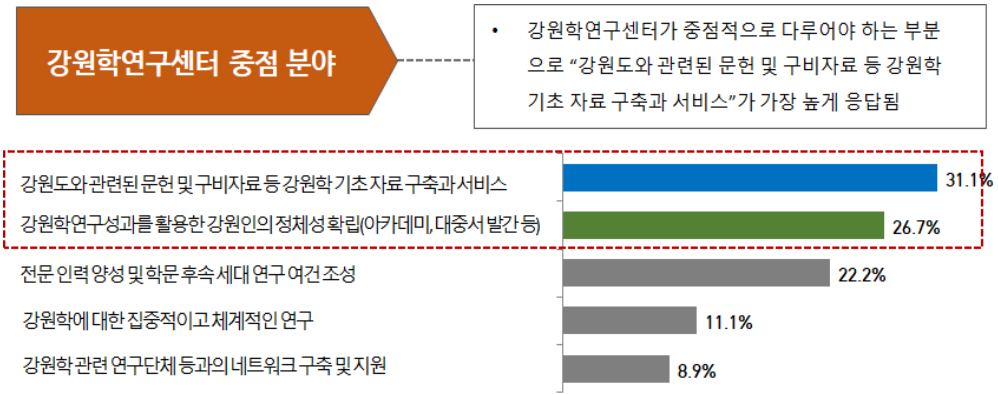
지역학 연구 결과물이 지역 주민의 자긍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설문 응답자 38명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강원학연구의 파급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설문응답자 38명 중 21명인 52.5%가 강원학연구가 사회에 끼칠 파급효과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지역민의 자부심 향상과 정체성 강화”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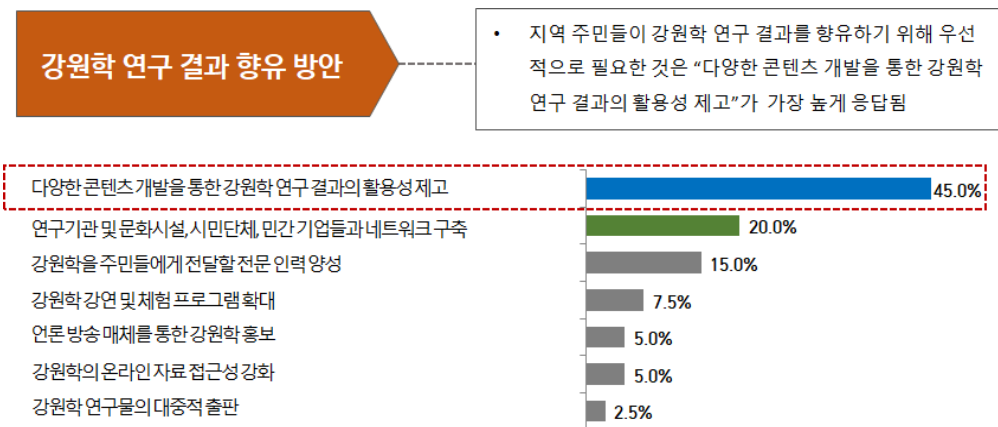
<그림 Ⅲ-14> 강원학연구의 파급효과

강원학연구센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으로 “강원도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강원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Ⅲ-15> 강원학연구센터 중점 분야

지역 주민들이 강원학 연구 결과를 향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강원학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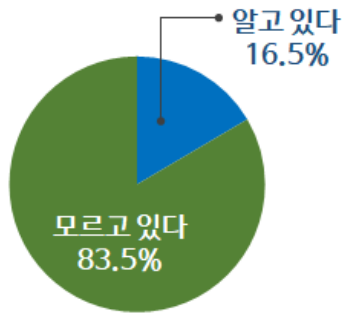


<그림 Ⅲ-16> 강원학 연구 결과 향유 방안

3.2.2 강원학아카데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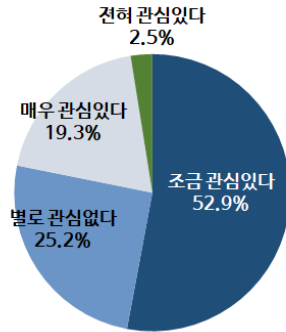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강원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원학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원학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였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강원학 인지도, 관심 여부, 주요 관심 분야, 교육 내용 만족도 등으로 설문조사 결과 121부가 회수되어 분석하였다.

강원학 아카데미에 참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원학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3.5%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은 강원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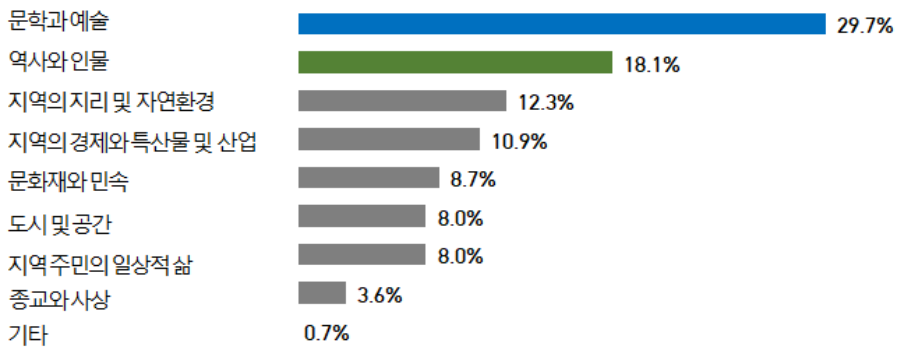
<그림 Ⅲ-17> 강원학 인지도(아카데미 참여자)

‘강원학’ 또는 ‘지역학’(춘천학, 원주학, 강릉학 등)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한 결과 조금 관심있다는 의견이 52.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관심있다는 의견도 19.3%였다. 전반적으로 관심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지역 주민의 관심을 향후 교육 및 탐방 등 강원학 관련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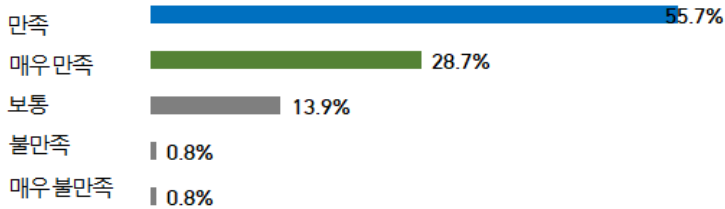
<그림 Ⅲ-18> 강원학에 대한 관심 정도

강원학 아카데미에 참여하였던 분들의 관심분야를 질문한 결과 문학과 예술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역사와 인물이 18.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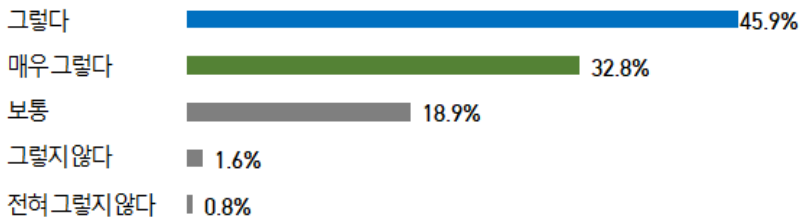
<그림 Ⅲ-19> 관심 분야

강원학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강의 준비 및 교육 내용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하다는 의견이 55.7%, 매우 만족이 28.7%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Ⅲ-20> 교육 강사의 강사 준비 및 교육 내용 만족도

강원학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교육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흥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45.9%, 매우 그렇다가 32.8%로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림 Ⅲ-21> 교육 내용의 이해도 및 흥미도

이번에 참여한 강원학 아카데미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41.8%, 매우 그렇다 27.9%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2>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

향후 지역학과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40.2%, 매우 그렇다 28.7%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6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3> 향후 교육에 참여할 의향

3.3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강원학연구센터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총체적·융합적 학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강원학연구센터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진단과 향후 강원학연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였다.

3.3.1 강원학연구센터 정체성 확립 문제

이번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강원학연구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다. 즉 강원학연구센터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학연구센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강원학과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창의적 지역학”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강원학연구센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긍정적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강원학 연구 자료가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나 세계유산 등재 등

강원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유산 등재의 경우 보통 10년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시안적 시각에서의 접근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 즉 강원학의 지향점은 강원도 지역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이런 목표 지향을 가지고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소재 발굴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강원학연구센터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핵심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강원도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고 강원인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타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공재적 측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현실적이고 동시적인 과제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깊이있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3.3.2 융복합적 연구 필요

강원학연구센터는 자연과 인문학적 지식의 융합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가 다양한 입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독특한 특징을 보이므로 이 지역들에 대한 자연환경과 인문학 융합연구는 단발성이 아닌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강원도의 생물 자원 현황에 대한 실증적 파악과 이를 인문자료와 연계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강원도 생물자원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문헌에 의한 '2010년 강원도의 야생동식물서식분포실태(식물 1,796종)'에 대한 것인데 내용에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생물상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실증적 생물상 파악과 함께 민속식물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구전 또는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식물의 이용에 대한 자료의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국립수목원에서는 2010년, 강원도에서는 2014년 민속식물조사가 수행되었지만 단발적 연구로 한계가 있어 향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스토리텔링과 연결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물과 관련된 지명 연구

도 필요하다. 마을 이름의 유래, 골짜기 이름 등 다양한 지명에 대한 기원을 찾고 생물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명의 경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생태자원과 관련된 지명에 왜곡이 심한 편이어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연환경과 인문학의 융합연구에서는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최근 하천에 물이 과거보다 굉장히 없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과거 40~50년 전 산에 무슨 나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화전민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화천댐,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이전 수몰되기 전의 인문 사회 등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산림, 강, 농업 등에 대한 과거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자료나 구술자료 등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환경과의 융합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3.3 강원도 자원의 세계화

강원학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유산, 기록문화유산, 농업문화유산 등재 등 강원도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단순히 등재되었다는 측면보다는 등재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 자연, 문화, 복합유산에 대한 세계 유산화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에 산재한 산업, 문화유산과 같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초 연구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일본은 군함도 탄광 지역을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10년 이상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7월 한국의 산사 7곳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었다.⁷⁾ 강원도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산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곳도 등재되지 못했다. 강원도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 강원

7) 한국 전통 산사 7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경북 영주 부석사, 경북 안동 봉정사, 경남 양산 통도사, 전남 순천 선암사, 전남 해남 대흥사, 충남 공주 마곡사, 충북 보은 법주사

도에 많은 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지 못했다.

강원도의 경우 DMZ, 탄광지역 산업유산, 설악 금강산 유산, 철원 태봉성 유적지 등 세계 유산화 할 자원이 많이 있지만 세계유산등재 시도가 없어 경험 축적이 안 되어 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앞으로 이런 강원도의 자원을 발굴하고 세계유산등재 준비 등을 하여 강원도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3.3.4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 및 디지털 활용 방안

근현대 강원지역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과거의 기록이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강원도와 관련된 근대 자원들 중에는 조만간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많다. 따라서 이런 자료가 사장되기 전에 구술 자료를 채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기초자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의 경우 이미 15년 전에 기상, 기후, 인구 이동 등 다양한 DB 연구단을 만들어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록들은 돈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기록 연구는 나중에 분명히 다각적 측면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없어 보이더라도 사장되는 자료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원도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 등을 발굴하여 알릴 필요도 있다. 인제 리빙스톤교, 영국 인류학자 이사벨라의 여행기 등 외국인이 강원도에 남긴 기억이나 사건 등을 재구성해 다른 시각에서의 강원도를 찾아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대중화 측면에서는 최근 디지털화 환경에 부응하는 강원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지도에 과거 강원도의 수계, 지리, 녹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디지털 DB화하고 도시나 마을을 정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3.3.5 남북강원 교류

통일 한국, 남북 교류 활성화 시기에 부응하는 남북 강원도 역사 문화, 정체성 구축 방안 및 기획연구사업도 필요하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인데 북경

기는 사실 얼마되지 않지만 북강원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북강원에 대한 이해 및 교류협력 추진은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강산을 설악산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라는 것이 유네스코 권고사항이었다. 고구려 유산의 경우도 북한과 중국이 함께 등재하였고, 실크로드도 5개 국가가 함께 등재를 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동시에 세계유산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동팔경의 경우도 남강원과 북강원에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고, 철원 태봉성의 공동 발굴도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3.3.6 강원학 관련 네트워크 체계 구축

강원학연구자 DB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도내 외에서 강원학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분야별 연구자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및 강원학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다. 더불어 강원도 내에 학계, 연구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원학 연구의 실효성과 센터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

IV.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구상

1. 강원학연구센터 중장기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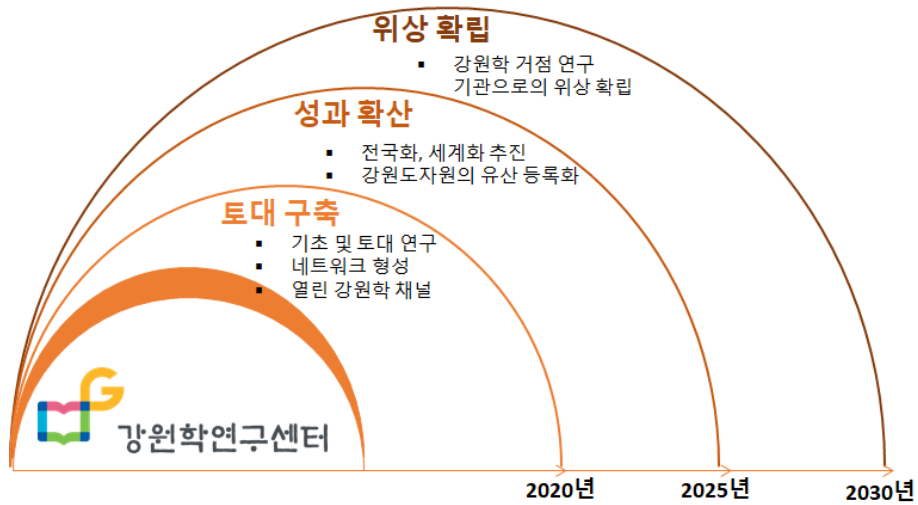
1.1 강원학연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강원학연구센터는 2017년 조례 제정, 설립 계획 확정, 센터 예산 및 연구 인력 확보 등의 준비기를 거쳐 2017년 10월 26일 강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강원학연구센터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후 2025년까지 성과 확산기, 2030년까지 위상 확립기로 단계별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강원학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2020년까지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들의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과 관련 기관 및 인적자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2단계 성과 확산기에는 기존에 토대 구축된 사업을 보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관련 콘텐츠 확산 등 사업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성과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위상 확립기에는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 거점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강원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IV-1> 강원학연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강원학연구센터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점 추진과제 발굴,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내실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강원학 연구의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고 강원학 거점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강원학연구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을 위주로 연구과제 발굴 및 기초 자료 수집을 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후 자료를 집대성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VI-1> 강원학연구센터 중단기(5년) 계획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구과제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 (올림픽, 농업유산, 탄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가공 및 심화 (기치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추진 TFT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 추진 	
	지명/지역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연구자 DB 구축 기획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대회 개최 기초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지명사전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강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강원유산 기초 자료 수집 학술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연구자 DB화 기획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강원 관련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강원학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 강원학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 강원학	강원학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조경, 식물 등 교육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기록가 양성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 스토리텔링 여행 등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수요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교재로 지역 연계 교육 	
	E-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표준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학 교육실태 및 발전 방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서 북부권 지역학 표준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서 남부권 지역학 표준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권 지역학 표준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learning 콘텐츠 개발 	
	강원학 지식총서 (5개년 50권 발간)	강원학 의식주(5권)	10권	10권	10권	10권	10권
네트워크	플랫폼	강원학대회 1 MOU-1 사업(MOU 기관 확대)					

1.2 정책의 기본방향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 연구의 내실을 기하면서 강원학 핵심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장기적 측면에서의 사업 수행,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학 모색, 플랫폼 기관(도우너리서치로서의 기능),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p style="text-align: center;">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업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등재 등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는 사업수행 ▪ 기초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등은 장기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여야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학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문지도, 교육용 게임, 앱 개발, 가상 현실 서비스 지원 등 새로운 방향에서의 융합적 지역학 모색 ▪ 연구결과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지역 주민 향유 기회 증진
<p style="text-align: center;">플랫폼기관(도우너 리서치로서의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에서 하기 힘든 공공성에 기반한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Donor research로서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과정에 주민 참여 적극 유도 ▪ 연구 성과물을 스토리텔링 여행, 북콘서트, 문화공연 등 문화관광자원화하는 방안 모색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민기록가 양성

<그림 IV-2> 강원학연구센터 정책의 기본 방향

1.2.1 중장기적 접근 필요

강원학연구센터가 지향하여야 하는 기본 방향은 강원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학문이어야 한다. 단기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융합학문으로서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규명되어 나아가야 하는데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 추진으로는 어렵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지향해야 할 사업들은 지역학 연구의 특성 상 단기적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 등재 등은 관련 자료 축적, 관련 계획 수립, 등재 신청 준비 등 보통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기초자료의 수집 및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등도 수집에서 시스템 개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1.2.2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학 모색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지역학 연구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이용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역사문화콘텐츠를 디지털 인문지도로 표시하는 작업, 교육용 게임 개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상현실(VR) 서비스 지원 등 새로운 방향에서의 지역 자산 활용 방식으로 지금까지 접근해 왔던 방식과는 다른 융합적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 결과물로 연결될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은 지역학 연구에서 축적해온 여러 인문자료에 공간정보를 덧붙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IS와 같은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은 앞으로 지역학 연구의 총체적 접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저변 확대와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⁸⁾

8) 박진한, 남상욱, 이호성(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연구의 새로운 방향모색”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7집 제3권 pp. 33-62

단순히 전자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 메타데이터⁹⁾로 재맥락화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이것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즉 사용자들이 손쉽게 지역학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학 자료를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로 재맥락화하여 메타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지명연구에서도 관련 자료의 전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식 지명 정비를 위해서는 일제 시기 전후의 지명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고지도, 지리지에 수록된 지명 등을 확인함으로써 지명 변화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별 지명을 모두 조사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도, 지리지 등 관련 자료의 전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학이 단순히 연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실용적 학문이라는 점, 또한 기초연구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통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방법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학의 모색은 향후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이다.

1.2.3 공공성에 기반한 플랫폼 기관으로의 역할(도우너 리서치로서의 기능)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강원도가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플랫폼 기관으로의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재로서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고 민간 연구기관이 수행하기 힘든 연구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기초적인 자료 구축 및 공급을 위한 역할 수행, 관련 연구자 지원 등의 부분에서 도우너 리서치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9)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이다.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하여 부여하는 데이터이다. 여기에는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 조건, 이용 조건, 이용 내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컴퓨터에서는 보통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과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데이터 [metadata] (두산백과)

도우너 리서치(Donor research)는 다른 연구를 위하여 원재료 혹은 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확장시켜 놓은 자료로서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¹⁰⁾를 말한다. 강원학의 지향점이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학 모색에 있다고 할 때 강원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강원학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강원학연구센터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강원도와 관련된 여러 기초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이런 자료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라키비움 설립 등으로 복합적 서비스 제공 공간을 마련해야 하기도 한다.

1.2.4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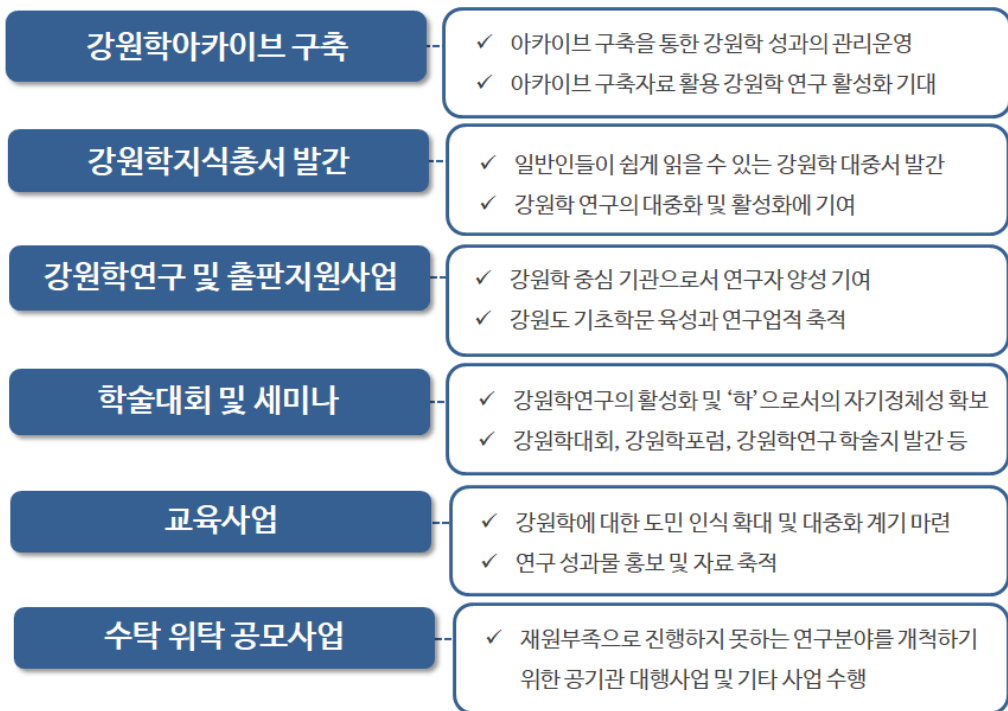
강원학 연구 성과물 활용 방안 개발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연구 과정이나 연구 성과물 파생 상품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문화 자원 발굴 행사, 지역 정체성 찾아가기 프로그램 등 강원학 연구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 성과물을 스토리텔링 여행, 문화 공연,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문화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주민 참여의 한 방식으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이 기록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기록가 양성이 필요하다. 시민기록가 양성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지역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조사하고 마을 주민을 인터뷰하고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은 기억의 담지자이자 기록의 생산자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자원들을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록하는 작업은 기록 과정과 기록물 모두 굉장히 중요하다.

10) 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2003) 「문헌세계의 구조-서지통정론」 한국도서관협회

1.3 강원학연구센터 육성과 확산을 위한 기본과제

강원학연구센터는 2018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제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연구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 추진된 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의 확장과 구체적 실현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림 IV-3> 강원학연구센터 주요 사업

1.3.1 기초 연구 사업 추진을 통한 토대연구기반 확충

강원학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강원학이 '학(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있어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유 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 사업은 강원도 인문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지리, 자연과학, 건축, 경관 등 다학제적 학문을 육성하여야 한다. 강원도의 고유 문화를 발굴 계승함으로써 강원학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강원학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 제공함으로써 강원학 연구를 심화시키는 토대 마련 및 콘텐츠로서의 활용을 통해 실천적 학문으로 발돋움하여야 한다. 특히 구술채록 및 사진자료, 신문자료 등 강원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강원학 연구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 국가의 강원도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3.2 연구자 지원 및 네트워크 필요

강원도 각 분야의 연구자 인력풀을 확보하여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융합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학 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함께 융합적 연구를 할 때 그 학문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다. 강원학 관련 연구자들 간의 교류는 강원학 연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학제간의 연구 및 강원학연구의 범업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원도 내의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 연구기관, 민간 연구단체 등 강원학 관련 연구자들 간의 유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 강원학 대회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강원도 내의 연구인력 풀 뿐만 아니라 전국적 단위의 연구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 타 시도의 지역학연구센터와의 교류협력 증진과 함께 강원학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진을 확보하여 강원학연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원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연구자 시각으로 보는 강원연구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강원학으로 중요하다. 교육이나 심포지엄 개최시에도 전국적 인력풀을 활용하여 강원도 내 연구진의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각 국가와 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호 간 교류를 진작시켜 강원학 연구의 진흥과 확산에 기여하여야 한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도민 연구와 강원도와 비슷한 해외 지역을 선정하여 교류 협력해 나가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

1.3.3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연구 결과의 집대성

강원학 관련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하고 통합적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동안 강원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학회, 단체, 관공서 등에서 축적한 다양한 분야의 강원지역 관련 연구 및 사업 성과물 자료를 집대성하여야 한다. 강원학 관련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축적된 자료들을 가공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공한다면 강원학 연구를 심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은 단기간에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및 강원학 자료 DB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한 강원학 아카이브 준비기를 거쳐 2단계로 강원학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강원학 아카이브 도입기, 강원학 자료의 콘텐츠화를 통한 정착기, 마지막으로 강원학 라키비움 설치를 통한 강원학 아카이브 발전기로 단계별 추진하여야 한다.

- 1단계(2018) : 강원학아카이브 준비기(기본계획 수립 및 강원학 자료 DB화를 위한 전수조사 완료)
- 2단계(2019~2020) : 강원학아카이브 도입기(강원학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 3단계(2021~2025) : 강원학아카이브 정착기(강원학 자료의 콘텐츠화)
- 4단계(2026~2028) : 강원학아카이브 발전기(강원학 라키비움 설립)

강원학 관련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하고 자료의 DB화를 통해 디지털 도서관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강원 라키비움¹¹⁾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 자원을 서비스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강원학과 관련된 자료 등은 도서뿐만 아니라 기록물, 고지도, 예술 작품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으로 집적해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면 지역 주민들이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세 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네이버 오픈사전」

1.3.4 열린 강원화

연구 성과의 대중화는 지역학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특히 최근 문화 향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대중화 사업 프로그램 기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은 가장 빠른 연구 성과 확산의 방법으로 지역학이 학문으로서 정착되고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계가 중요하다.

정부 정책적으로도 인문 강연, 인문 융합프로그램, 인문 동아리운영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학 연구가 궁극적으로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은 지역 정체성 확립에 교육적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사람, 사상 등을 학습함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함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매력이나 가능성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 낼 때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에 일방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 주제는 인문학에만 치중되기 보다는 도시, 공간, 건축, 조경, 식물, 동물, 산, 강, 역사, 음식, 예술, 환경, 강원인의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적인 과정 외에 구술사 교육, 마을지 작성법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 일본 돗토리 사례

- 일본에서는 지역연구, 지역학습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운동으로서의 지역학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돗토리대학은 2004년 지역학과를 창설할 정도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학부에 지역정책학과, 지역교육학과, 지역문화학과, 지역환경학과를 설치하였다가 2017년 지역학과로 재편하면서 지역창조코스, 인간형성코스, 국제지역문화코스로 편성

자료 : 유재춘 “강원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미래” 강원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포럼 자료 중 발췌

대학의 지역학과 설립은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강원도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지역학 대학원 과정 설치는 보다 전문적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대중 강좌의 성공은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강원학 관련 인력풀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원도 내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국적 단위에서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강연의 질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교육과 지역 인식 제고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기 위해 전문서적 발간과 함께 대중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기존 강원도와 관련된 문헌들의 경우 연구의 내용이 어려워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강원학 「지식총서」는 학술적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여 청소년,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강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대성이 좋고 필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핸드북 형식으로 가독성이 좋은 편집틀을 사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강원의 자연을 주제로 강원의 산/ 강원의 강/ 강원의 해안/ 강원의 식물/ 강원의 동물 5종을 발간하였다. 앞으로 매년 다양한 주제의 지식총서를 발간하여 향후 100권 발간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 나갈 계획이다.

1.4 강원학연구센터 육성과 확산을 위한 핵심과제

1.4.1 강원도 유산의 세계화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국가 및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등재, 세계 유산화 추진 등으로 강원도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강원도민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세계유산이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와도 일치하여 세계유산 지정이 세계적으로 지역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농산어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가치를 발굴하고 과거의 우수한 자원을 현대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재조명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의 국내외적인 인정이다. 그래서 등재 신청 작업에서 등재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해내는 작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체계화와 함께 지역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1972년부터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나뉜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세계무형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이나 세계기록유산과는 개념상 구별되며 별도로 관리된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단기간 추진으로는 어렵고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으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인류 대대손손 길이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세계기록유산에는 아주 오래된 기록들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5.18 기록이나 일본의 야마모토 사큐베에의 기록처럼 현대의 기록이거나 개인적인 기록도 등재된다. 기록물의 형태도 다양해서 책, 신문, 잡지, 포스터, 그림, 악보, 영화, 지도 등 거의 모든 기록물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모두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이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기록유산은 한국보다 적은 10개이다. 이는 문화대혁명으로 상당수의 기록 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기록유산은 그 기록 내용의 정보적 가치 외에도 기록물의 실물자료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기록물 자체의 보존 중요성도 중요하다. 강원도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에 대한 발굴을 통해 향후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도 강원도 유산 세계화의 한 방안이다.

▶ **세계유산[World Heritage, 世界遺産]**

-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인간의 부주위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을 제정하면서 시작
-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의 3가지로 구분
- 문화유산은 유적·건축물·장소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세계문명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지·사찰·궁전·주거지 등과 종교 발생지 등이 포함
- 자연유산은 무기적·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 지질학적·지문학적(地文學的)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함
-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 한국은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등 12건이 문화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1건이 자연유산으로 등재
- 향후 등재 가능성이 있는 잠정 목록으로는 삼년산성, 공주무령왕릉,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등이 있음
- 북한은 2004년 고구려 고분군과 2013년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유산 [World Heritage, 世界遺産] (두산백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은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의 보존 가치가 있는 농업 유산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의 특수성을 가진 농업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농업으로 발굴하고 나아가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강원도 자원 세계화의 한 방안이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까지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나 연구 등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강원학연구원에서는 강원도와 관련한 다양한 농업 유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채록하여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 더 나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세계중요농업유산**

- UN 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전통적 농업부문과 농업에 의하여 육성 유지되어 온 토지 이용, 기술, 문화풍습, 풍경 그리고 이들의 복합물들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보전, 전수, 활용이 필요한 농업, 농촌자원을 발굴 지정하여 브랜드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까지 제주 돌담밭, 전남 구들장논 등 4개의 농업유산을 지정
- 강원도의 특수성을 가진 농업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농업으로 발굴하고 나아가서 세계중요농업 유산으로 지정 추진

1.4.2 마을 기록화 사업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체계화

그 지역의 특수성 및 역사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수집 및 채록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근현대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 기초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전쟁 이후 근현대사 연구에 대한 사진 자료 및 구술 자료의 채록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자료가 더 사장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남겨야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기록가가 자료 채록 및 연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도시와 마을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기록화사업은 지속성 있게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기록가 양성은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록이 축적되어 자산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시민 기록가들이 사진을 찍고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시민기록가 스스로 지역을 알게 되고 지역을 공부하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형성과 정체성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 지역 기록 단체인 원주 아카이브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인 시민기록가들이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지역자료를 축적해 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에 대해 공부해가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원주 아카이브협동조합 사례**

- 원주 아카이브 협동조합은 2009년 도시기록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3년 시민기록가들이 출자하여 아카이브 협동조합을 창립
- 시민의 기록이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시민기록가들이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록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 원주 지정면, 호저면 등 마을 조사사업 발간물, 시장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중앙시장 60년”, 협동도시인 원주의 모습을 기록한 “협동조합도시 원주” 등을 발간
- 원주의 변화하는 모습을 남기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전후의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있고,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촬영도 진행하고 있음
- 매년 11월에는 지역기록문화축제를 진행하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음
- 2009~2013년까지는 사진 아카이빙이 중심이었고, 2014년부터는 마을 기초조사, 마을 주민 인터뷰, 마을 이야기 발굴 등 사진과 함께 관련 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민간영역에서의 기록 자료가 많이 없는데 시민기록가를 양성하여 공적 영역 자료 수집의 한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민간영역의 자료를 시민자산화하고 기록 축적을 꾸준히 하여 공적영역과의 매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기록가는 기록을 하는 매개자,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전문 연구가는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심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원학연구센터는 민간영역과 전문연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아카이브 한다면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1.4.3 융복합적 연구를 통한 지명연구 및 지역어연구 필요

지명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반영한 언어 표현으로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성을 띠면서 장소의 구별 목적 이상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명에는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이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 있어 지역의 역사, 형상, 풍속, 의식, 도덕, 종교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의 정체성(正體性)을 정확하게 조망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지명 연구를 통해 지역 지명의 기초적인 자료를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작업은 지역학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지명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역사, 문화, 상징 등 공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왕권변화, 지리적 변화, 언어의 변화, 도시화, 행정 구역 재편 등에 따라 소멸되기도 신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지명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대는 일제 강점기로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변화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 지도 제작 과정에서 지명 변화가 일어났다. 광복 이후 분단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행정 구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명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강원도 지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지명 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18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디지털 백과사전의 형식으로 강원학아카이브와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

▶ 일본식 지명 미정비 사례

- 양구군 남면 구암리
 - 마을에 거북바위가 있어 ‘거북바우’ 또는 ‘구암(龜岩)’이라 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한자의 단순화를 위해 ‘구암리(九岩里)’로 칭하였음
-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건너마을’이라는 의미로 ‘월리(越里)’라고 불렸으나 일제강점기 때 ‘월(越)’의 한자를 단순화하기 위해 ‘월(月)’로 오칭하였음

방언에는 지역 문화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표준어 중심적인 어문정책으로 지역 언어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보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도 방언연구는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보존 및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강원도 방언은 크게 영동방언과 영서방언으로 나뉜다. 강원도 방언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일부 등재되어 있지만 많은 어휘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강릉, 삼척 등 영동지방의 일부지역 방언은 관련 연구가 있었지만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경북, 경남, 제주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방언사전, 방언연구 등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종합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 내의 방언, 토속어 등을 모두 발굴하여 강원도 종합 방언사전을 발간하여 수록할 필요가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강원도 어휘 연구, 식물에 나타나는 강원도 어휘 연구, 실제 사용 용례 분석 등 강원도 지역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강원도 전체를 총괄한 지역어 연구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영서와 영동지역에 대한 총체적 지역어 연구가 필요하다.

▶ 김유정 소설 속의 우리 말

- 덩저리, 쌓이질, 멍쌀하다, 감때사납다, 격실격실- <봄·봄> 중에서
- 땀납, 짜장, 가을하다, 보강지, 퍼들깡하다 -<산소골나그네> 중에서
- 들피지다, 잡도리, 뽕나다, 들레다, 팔팔걸, 꺾고틀다 - <금> 중에서
- 버덩, 허구리, 낙자없다, 부라질, 해갈, 줄대 -<총각과 맹꽁이> 중에서

1.4.4 남북강원 이해를 통한 통일 강원 대비

강원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북강원과 남강원으로 나뉘어지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강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한 통일 강원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휴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은 반사적 이익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갖게 되었다. 남북 유산 관련 연구사업, 남북 강원 유산의 아카이브화 등 남북 강원문화의 자산화를 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남북 강원 유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채록하여 자료화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강원유산에 관련된 문헌자료, 고지도, 고서화 등 원(原) 자료 수집과 분단의 현장인 강원도 지역 실향민의 현황, 과거 북강원도의 생활사 구술조사를 통해 강원도의 미래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강원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여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에 토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강원학아카이브에 남북 강원 유산 관련 기획 아카이브를 마련하여 남북 강원 유산에 대한 자료를 강원학아카이브에서 제공하거나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DMZ와 관련하여 G1 강원방송의 DMZ 스토리가 300편 제작되어 방영되었는데 공공 자산의 활용 측면에서 강원도 자산화하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G1 강원민방/300부작 DMZ 스토리

- 2011.10.11. - 제1부 <1953년 7월 27일생, DMZ>
- 2011.10.18. - 제2부 <DMZ, 인류의 조상을 품다>
- 2011.10.25. - 제3부 <그곳에 원시림은 없다>
- 2011.11.01. - 제4부 <해금된 주홍글씨 '노동당사'>
- 2011.11.15. - 제5부 <상허의 용담마을>
-
-
-
-
-
- 2018.03.08. - 제300부 <남북단일팀 코리아, 평창올림픽 27일간의 동행>

논의의 확장 및 심화를 위한 남북 강원 유산 관련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강원 유산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연구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학술행사 및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 유산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등재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관련 연구자 지원사업을 통한 연구자 양성도 필요하다. 남북 강원의 역사 문화 교류 협력 사업은 비정치적이면서 비군사적인 교류협력으로 남북관계 경색에도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

1.4.5 지역학 교재 개발을 통한 지역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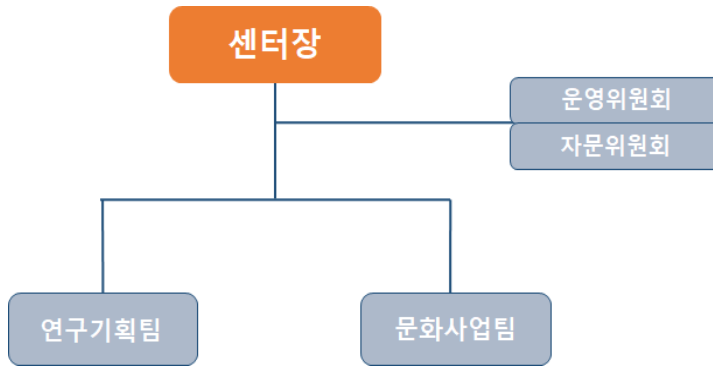
강원지역을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고, 표준화된 지역학 교재 개발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에서 강원학과 관련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학개론을 발간하여 강원의 역사와 문화와 함께 관광, 접경지역 등 강원도만의 특징적인 문화, 북강원의 이해 등 강원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학개론 교재를 개발한 이후 이러닝 콘텐츠로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강원학 관련 강좌를 대중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원학연구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이러닝(E-learnig)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캐릭터를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강원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강원학교재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학교 교육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교재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계획

체계적인 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있어야 중장기적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지향해야 할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은 단기적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사업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와 자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원학연구센터는 현재 비상임 센터장 1인과 전문연구원 3인, 위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위촉직 연구원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IV-4> 강원학연구센터 조직도

강원학연구센터의 자문기구로는 조례상에 명기되어있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임기 2년에 1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강원학연구센터의 연구 활동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자문위원회는 관련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특히 연구 사업의 범위, 발간 간행물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강원학연구센터는 조례를 통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는 되어있다. 향후 전문연구원 확대와 안정적 자원 확보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강원학연구의 고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단계별로 강원학연구센터의 고유 사업이 증가하고, 국책사업 등을 통한 외부 위수탁사업이 증가할 경우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사업, 교육사업 등은 향후 사업이 확대되면서 별도의 팀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지원팀 인원 충원도 요구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로젝트 연구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경우 중장기적 필요에 의한 연구가 되기 어렵다. 프로젝트 사업은 대부분 단발적인 사업이 많고 보통 1~2년 사업 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강원학연구센터의 재원은 일부 프로젝트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강원도 출연금이 대부분이다. 강원학연구센터의 재원은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12조(재정지원)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강원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학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학연구센터가 초기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도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원학연구센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체 사업을 늘려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원의 경로를 다양화하여 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 확대를 통한 매칭펀드 확보로 전체 센터 사업비를 확대해 가야 한다.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연구자료 및 기증 아카이브 원자료, 장서, 기타 자료 등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강원학연구센터의 공간에서는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2020년 강원연구원 신축사옥으로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향후 신축사옥에 연구 업무 공간 외에 자료보관과 강원학연구센터 관련 자료를 보관 전시할 수 있는 라퀴비움 신설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도 강원학과 관련된 자료를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라퀴비움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연구원 신축사옥의 문제 상 라퀴비움 구축이 어려울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라퀴비움(도서관, 전시실, 문화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표 VI-2> 강원학연구센터 중단기(5년)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구과제	강원학연구 및 출판지원사업	80	100	130	130	180
	아카이브	70	200	200	200	200
열린 강원학	교육사업	30	70	100	100	100
	강원학 지식총서 (5개년 50권 발간)	50	100	100	100	100
네트워크	학술대회 및 세미나	50	100	100	100	100
	플랫폼 구축	30	50	70	70	70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125	300	300	300	600
	수용비 및 관리비	65	80	100	100	150
합계		500	1,000	1,100	1,100	1,500

■ 참고문헌

- 관련 보고서·논문 및 발표자료

- 김병철 외(2016),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551호
-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 성과와 반성” 「지역연구」 제30권 제4호(2014년 12월) 87-103
- 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2003) 「문헌세계의 구조-서지통정론」 한국도서관협회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2006), 「대구경북학 연구논총」 제1집
- 문순덕(2011),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2011년 제주학회 제36차 전국학술대회」 제주학연구센터
-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연구의 새로운 방향모색” 「열린 정신 인문학연구」 제17집 제3권 2016.12 33-62
- 설문원(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연구」 제32호 3-44
- 심재권 외(2014), “대학생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 지역학(천안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2014 봄): 441-464
- 염미경 외(2007), “제주학에서 지역연구의 성과와 전망” 「제주도연구」 30집
- 유영심(2016),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정립방안」 강원연구원
- 유재춘(2018), “강원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미래” 「강원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포럼 자료집」
- 유철인(1996), “지역연구와 제주학 :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13집, 33-52
- 유철인(2011),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 제주해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2호(2011.5) : 113-138
- 육동한 외(2018), “강원학연구센터 재출범과 앞으로의 과제”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663호
- 윤소영(2018), “경기도 옛길 사업의 이해” 「제14차 한국지역학포럼」

- 이경진(2015),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 이익주(2016), “서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국학진흥원 2016년 안동학 포럼 자료
- 이재호(2017), “지역학 연구의 경향과 울산학 연구 방향”, 「울산학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 좌혜경(2011), 「제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좌혜경(2016),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최종현(2013), “서울학의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연구 주제 제안” 「서울학연구」
- 한상우(2012), 「경남지역 자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 관련 보도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경기도 메모리 홈페이지 <http://memory.library.kr>
-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seoulstudies.uos.ac.kr>
- 인천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si.or.kr/study/main/index.php>
-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jst.re.kr/main.do>

부록 1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06-16 조례 제 41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의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강원학연구센터”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강원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원도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강원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강원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강원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강원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강원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강원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52호,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bstract

The Master Plan for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Lee Jong-mi

The researches related to regional studies have increased with the expanded recognition of the distinct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of each region as a result of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since the 1990s and the trend of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earnest discussion about regional studies. Local residents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their reg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self identity, and the increased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is expected to heighten the desire for more regional studies.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 was established in 1993 on the occasion of the 600th anniversary of the decision of Seoul as the capital of Korea in 1994. Since then, many research institutes for regional studies were established in other regions during the mid- and late 1990s. The research institutes for regional studies were established mainly by the research institutes of local self-government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societies and recently the number of the research institutes for regional studies is increasing with the emphasis on decentralization.

Since 2016, the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brought the necessity for the revival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into focus through Gangwon Forum, and the ordinance for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was enacted on June 16, 2017 to prepare the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reopened in 2017 in the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to make a turning point in the research of Gangwon studies. In order for the reopened Center for Gangwon Studies to play the role of the platform for the research of Gangwon studies as a base research institut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mid- and long-term vision of the general operation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This study aims to set up the phased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in the future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Gangwon studies as well as SWOT analysis and suggest a desirable way of op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 Gangwon studies. In addition, top priority projects will be selec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and policy directions will be presen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s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as the base research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The basic data on the principal direction and programs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was collected through circulating seminars, surveys and consultation meetings of experts. It was possible to hear the advices on the practical problems with the researches of Gangwon studies and the desirable role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and set up the direction of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through such a process.

To summarize the general opinions suggested in the circulating seminars, surveys and consultation meetings of experts; firstly the practical problems

with the researches of Gangwon studies include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for Gangwon studies, the difficulty in the acquisition of the materials related to Gangwon studies, the absence of an academic journal related to Gangwon studies, and the lack of basic data. Various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solution of the pending problems and the role of the reopened Center for Gangwon Studies as the platform in the reg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Gangwon studies,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Gangwon studies, strengthening basic foundation researches, the necessity for convergence studies, expansion of education,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o train regional experts and set up networks, and the necessity for the research of northern Gangwon.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has established phased development plans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various regions. Firstly, the focus will be put on establishing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 programs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such as system set-up and network construction and building network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until 2020 when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f Gangwon studies is completed. During the second phase of the results diffusion period, the programs with a sound foundation will be complemented and strengthened and the results of the programs will be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by expand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related contents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During the final third phase of the status establishment period, the status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as the base research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will be strengthen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Gangwon studies.

The basic direc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set for the achievement of such plans include conducting programs in the mid to long term, seeking new regional studies based on digital environment, being a platform

organization (with the function of a donor research) and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selected core tasks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which will be used for the expansion and specific realization of the programs along with the already completed programs include the globalization of the heritages of Gangwon Province, systematic collection of basic data through the maintenance of village records, research of place names and local dialects through convergence researches, preparing for reunified Gangwon Province through understanding of North and South Gangwon Province,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g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on regional studies.

강원학 연구보고 1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The Master Plan for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Gangwon Studies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육동한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전화 : (033) 250-2980, 2983

URL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